

고흥군, 나의 목일신을 무대에 올린다... 중장년 주민, 역사와 예술로 만나

# 세대가 함께 부른 기억과 저항, 그리고 새로운 시작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고흥군 문화도심센터(센터장 서성훈)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세미 뮤지컬 <목일신의 세 포들: N개의 목일신, 조각맞춤하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주민이 참여해 역사적 인물 목일신을 탐구하고, 직접 대사를 만들어 무대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N개의 목일신'이라는 제목은 참여자마다 발견한 목일신의 다양한 모습을 의미한다. 동요 작가, 항일운동가, 교육자, 시대의 저항자 등 다양한 조각을 이어 붙이며, 주민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 목일신을 지난 제12회 목일신 동요제에서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렸다.

특히 세대 간 협업이 돋보였다. 중장년층 주민과 90년대 이후 출생한 강사진

이 함께 참여하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몸과 목소리로 재현하는 '포스트 메모리(post-memory)'적 경험이 가능했다.

참여자들은 연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성과 동작, 노래, 안무를 배우며 점차 배우로 성장했다. 리허설과 공연에서 올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관객에게 강렬한 감동을 전했다.

서성훈 센터장은 "중장년 주민이 지역 인물을 재해석해 무대에 올리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문화재단과 함께 한 이번 프로그램은 말과 글, 기억과 저항, 삶과 예술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참여 주민들은 "N개의 목일신'이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닌, 주민이 자기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함평군 월야면 추석맞이 환경정화 나서

정산교차로·월야교차로 일대 쓰레기 수거·풀베기 작업 등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추석을 맞아 귀성객 맞이에 나섰다.

함평군은 24일 "월야면 복지공동체가 지난 23일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활동은 월야면의 주요 관문인 정산교차로와 월야교차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복지공동체 15여 명이 참여해 도로변 사면 및 교차로 주변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는 등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벌였다.

특히, 도로변 정화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커, 월야파출소가 협력해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교통을 일시 통제하는 등 안전을 확보했으며, 경찰관들도 함께 쓰레기 수거에 참여해 깨끗한 월

야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정정오 월야면 복지공동체장은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화 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명희 월야면장은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더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힘써준 복지공동체와 월야파출소에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깨끗한 월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공동체는 평소에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정비,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 HD현대삼호, 5.5억원 영암 농산물 추석 선물 구입

올해 11억,5000만원 상당 구입... 지역순환경제 실현

HD현대삼호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명절 선물로 5억,5000만원 상당의 영암군 농산물을 주문했다.

23일 영암군은 HD현대삼호에서 사과, 배, 멜론, 귤, 한우, 한돈, 장어, 오리훈제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품 주문을 마쳤다고 알렸다. 지역 생산 농특산품과 영암사랑상품권 등 구입으로 기업과 지역의 상생, 지역순환경제 실현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HD현대삼호가, 일찍부터 지역사회 명절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지역경제 훈풍의 진원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지역 농가와 업체 등도 HD현대삼호의 명절 선물 구입을 반기며, 기업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영암의 정과 푸짐함을 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HD현대삼호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4억7,000만원 상당의 쌀 한우, 한돈 등을, 여름에는 1억3,000원 상당의 수박, 멜론을 간식으로 구입해 직원과 협력사에 나누며 지역농가를 도왔다.

영암군은 지역 앵커기업인 HD현대삼호의 농특산품 구매가 명절을 앞둔 지역경



제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재진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영암 농특산품 구입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 의미가 크다. HD현대삼호와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2025년 신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이하 공단'(이영희 본부장)은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대상으로 4개 권역(광주, 순천, 목포, 전주) 나누어 2025년 신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의 리더십 함양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제

도를 운영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신규 개설 기관 대표자 등 206개소, 231명이 참석하였다.

공단은 공인노무사(정연 파트너스 대표) 등 내·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기관 노무관리, 노인 학대 및 종사자 성폭력 등 예방, 장기요양 급여제공 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 등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89%가 "지속적인 교



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노무관련 강의를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영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돌봄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광양경자청, 2025 제2차 투자유치 활동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투자유치 활동 실적 및 애로사항 등 투자유치 전략 논의

광양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25일 청사 상황실에서 투자유치 담당 PM(Project Manager)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PM 투자유치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투자유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70여 개의 타깃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유치 활동 시 애로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회의는 담당 PM들이 관리기업별 투자유치 활동 추진 현황 및 3

분기 추진 성과, 문제점 등을 보고하고, 이어 참석자 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종곤 광양경자청장은 "투자유치 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모색, 투자유치 담당 PM들의 폭넓은 투자유치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보고회가 투자유치 담당 직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역내 산업 성장동력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섬진강기차마을